

최명규 목사 STP 15기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부흥과 성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 많은 세미나를 다니며 교회 성장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수 많은 전도 세미나를 다니며 전도에 대한 열의를 가졌지만
모든 일들이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성장할만 하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사를 가는 교인들이 생겨 주저 앉기를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교인들이 이사할 때는 교회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그들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저의 소망과 희망은 교회 성장과 부흥이었습니다.

때문에 성장이 없는 교회를 볼 때 감사 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따랐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고 열심히 설교 했는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좌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낙심하며 이후의 일들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청빙을 받을까? 교회를 접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노회에 한 목사님의 소개로 STP 세미나에 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휴식도 취하고 생각도 정리할 시간을 가지려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세미나를 다녀왔기에 특별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시간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세미나를 통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자가 아니었다 라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목회의 성공과 성장을 위해 설교하고 목회했다라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목회가 죽은 것도 아니고 교회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 STP 정규과정에 등록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서도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 행복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설교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설교하기에 강단에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난한자가 아니라 부요한자가 되는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목사에서 성공한 목사가 되었습니다.